

소고기 살땀 좋았는데...재난지원금, '증세 부메랑' 되나

5월 누계 재정적자 77.9조...기재부 "코로나로 지출증가" 금융세계 개편 이어 부동산세 강화 추진 '교육지책' 분석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결국 재정적자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 나라살림은 78조원의 구멍이 났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재정적자 111조5000억원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적자를 세수로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금융투자세제 개편과 부동산 세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결국 정부가 증세라는 교육지책에 나서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난지원금 쓸 때는 좋았는데...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장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77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36조5000억원보다 41조4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통계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이자, 지난해 연간 적자 54조4000억원보다 23조5000억원 많은 규모다.

재정적자는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면서 21조3000억원이 늘어나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단기간에 재정적자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총수입은 감소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집행 등에 따라 총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5월까지 총지출은 25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 기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 중 12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세수는 줄고 채무는 늘어나고...증세 카드 만지작

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재정적자 때문만은 아니다. 지출이 늘더라도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면 적자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세수상황은 최악이다.

5월까지 총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조7000억원 감소했다. 5월 누계 국세수입이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조3000억원 줄어든 것이 결정타가 됐다.

세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국가채무 수준은 800조원에 육박한다. 무작정 국채발행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증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주식양도세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금융세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2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최고 25%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2023년까지 가세세를 0.1%포인트(p) 낮추는 방안이다. 정부는 양도세를 확대하는 만큼 거래세를 인하하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최근 집값 폭등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다주택 투기세력에 대한 관세 증세 방안도 준비 중이다. 다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적용하고 양도세 등의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호 한국경제학 회장은 "현재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한 뒤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면 증세를 해서 메우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증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세 논란에 대해 "(정부는)금융투자소득세수가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경우 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수가 증권거래세 인하분보다 덜 증가하더라도 증권거래세의 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금융세계 선진화 추진방향은 증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이슬 기자

팔도도 비빔면 중량 20% 늘렸다...양 늘린 오뚜기에 도전

중량 156g으로 갈아져...비빔면 성수기 '마케팅' 치열



팔도가 3년 만에 비빔면 중량을 20% 늘렸다. 연초에 세운 계획에 따라 증량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오뚜기 '진비빔면'에 대한 견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뚜기는 지난 3월 진비빔면을 내놓으면서 백종원씨를 모델로 선정하는데 이어 '중량 20% 증가'를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웠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팔도는 지난 5월 팔도비빔면 중량을 20% 늘린 여름 한정판 '팔도비빔면 20% UP'을 선보였다.

팔도비빔면 20% UP 한 봉지당 제품량은 기존 130g보다 20% 늘어난 156g이다. 6일 대형마트 온라인몰 기준 팔도비빔면 20% UP 4개입 제품은 2480원에 판매되고 있다. 개당 가격은 620원이다.

팔도비빔면은 1984년 출시된 후 36년간 비빔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인기 제품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약 14억개가 판매돼 61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닐슨코리아

에 따르면 팔도비빔면은 지난해만 1억 1500만개 넘게 판매됐다. 비빔면 시장 전체 점유율도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팔도비빔면이 올여름 갑작스레 마케팅 변화를 꾀한 이유는 오뚜기 '진비빔면'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 3월 첫 출시된 진비빔면은 등장 초기부터 푸집한 양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오뚜기는 진비빔면 포장지에 '시원한 매운맛! 20% UP!!' 문구를 강조해 중량 경쟁에 불을 지폈다.

진비빔면 1개 중량은 자사 메밀비빔면 대비 중량을 20% 늘린 156g이다. 팔도비빔면 20% UP 제품과 내용량이 같다. 진비빔면의 대형마트 온라인몰 판매 가격은 4개입 기준 2780원이다. 개당 695원으로 팔도비빔면 20% UP보다 약 12% 비싸다.

오뚜기는 진비빔면 모델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앞세워 화제성까지 높였다. 진비빔면은 출시 이후 각종 SNS에서 입소

문을 타며 올여름 비빔면 시장 새로운 각자로 떠올랐다.

이같은 인기로 힘입어 진비빔면은 출시 2개월만에 판매 2000만개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15년 '진짬뽕'이 세운 50일 만에 1000만개 판매 돌파 기록보다 빠른 속도다. 오뚜기는 지난달까지 집계된 진비빔면 판매량이 3000만개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기존 비빔면 양에 아쉬움을 느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20% 증량을 강조한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적당한 양으로 여성 소비자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팔도 관계자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원가 부담 등을 이유로 비빔면 증량 제품 출시를 미뤘었다"며 "올해 20% 증량 계획은 진비빔면과 무관하게 연초부터 예정되었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팔도는 앞서 지난 2016년 '하나라는 부족하고 두 개는 많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제품량을 20% 늘린 '팔도비빔면1.2'를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팔도비빔면1.2는 판매 50일만에 1000만개가 모두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한편 진비빔면의 도전에도 팔도비빔면 인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수 십년간 칠비빔면·메밀비빔면·함흥비빔면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이 팔도비빔면 경쟁자로 나섰다. 하지만 팔도비빔면은 출시 이후 36년간 단 한번도 시장 점유율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지난해 팔도비빔면 판매량은 2018년 대비 15% 늘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1

사실혼 출산 자녀시 '신혼특공1순위' 검토

국토부, 인권위 제도 개선에 검토
22번째 추가대책에 포함될 듯
이미 난임 치료 시술도 가능해

정부가 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가점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초읽기에 들어간 22번째 부동산 정책 중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담길 수도 있다.

7일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해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도 청약 시 가점 사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이고 임신, 입양자녀를 포함한 경우를 1순위로 하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의 자녀 출산은 주택 청약때 특별공급에서 제외시켰다.

일각에선 프랑스나 다른 나라의 예처럼 과거 전통적인 호적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 부부로서 사는 것이 확인되면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법에 사실혼 기준이 일부 있는 것을 참고해 최소 동거 기간 등 사전에 맞는 기준을 새로 도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동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4%를 기록해 조사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도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와 자녀의 부양을 증명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적용할 소지가 다분한데다 사실혼을 판단할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아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 간법'을 개설했다.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때에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근무자의 청약 1순위 자격 박탈'과 관련 선택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파견으로 단신 부임하는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청약 1순위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단신 부임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을 여러 건 묶어서 늦어도 연내에는 내용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1번째 부동산정책인 '6·17 대책'의 후속으로 최근 실수요자 보호, 공급확대 등을 겨냥한 22번째 부동산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기아차, 2030 겨냥 구매 프로그램 '스타트 플랜' 출시

48개월간 차량 가격 최대 57% 유예...특별 저금리 적용

기아자동차가 2030세대의 차량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구매 프로그램인 '스타트 플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스타트 플랜' 프로그램은 △차량 가격 일부 유예 △특별 저금리 적용 △다양한 부가 서비스 연계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기아차만의 특별한 구매 프로그램이다.

이달 중 모닝, 레이, K3, 니로 HEV, 쏘울, 스토닉, 셀토스 스포티지 차량을 출고하는 2030 세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총 48개월의 할부 기간 동안 선수를 제한 없이 차량 가격의 최대 57%를 유예하고, 3.5%의 특

별 저금리 혜택을 적용 받아 차량 구매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트 플랜' 프로그램을 통해 셀토스 가솔린 프레스티지 트림(개소세 감면 반영 시 차량가 2248만 원)을 구매할 시 48개월간 달마다 약 25만 원을 납입하고, 마지막 할부금 납입 회차에 약 1281만 원의 유예금을 함께 납입하면 된다.

기아차는 이밖에 △차량 취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 △주유 시 리터 당 300원을 할인해주는 주유비 할인 지원 △신차 외관 손상을 보장해주는 'K-스타일 케어+' 서비스 무상 가입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2030 세대의 차량 구매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고민한 끝에 이번 구매 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됐다"며 "장기 렌터카보다도 부담이 적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카 라이프를 경험 하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름휴가비 받는 직장인 10명 중 2명 뿐

평균 35만원 4천원...8월 2주차 16.7% 최다

올해 여름휴가비를 받는 직장인이 10명 중 2명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 앱 알바플러스는 직장인 866명을 대상으로 '2020 여름휴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6%가 올여름 하계휴가비를 지급받겠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하계휴가비로 평균 35만

4000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예상 휴가시기는 △8월 2주차 16.7% △7월 5주차 15.1% 순으로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3~10일까지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5%이다.

뉴스1